

## 누가복음 2장 49하반절의 의미론적 번역 제언

김광모\*

### 1. 들어가는 말

메시아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해 진술하는 유일한 구절인 누가복음 2장 40-50절에는 예수의 첫 발화(speech), 곧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έι εἶναί μὲ*가 포함되어 있다(49절). 마리아와 요셉을 대상으로 한 이 발화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 번역해야 할 단어는 관사 *τοῖς*이다. 이 관사 다음에는 있어야 할 남성 혹은 중성 명사 복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관사 *τοῖς*를 ‘집’이라 해야 하는지, ‘사람’이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이라 해야 하는지가 번역 혹은 해석의 관건이다. 문자적 번역을 하자면, “내 아버지의 \_\_\_ 들에”이다. 문제의 발화를 번역하는 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가능성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이다. 둘째 가능성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에 종사해야 한다”이다. 그리고 셋째 가망성은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야 한다”이다.<sup>1)</sup> 또한 *εἶναί*도 마찬가지이다. ‘존재하다’라 할 것인지, 아니면 ‘종사하다’라 할 것인가 주요 연구 대상이다.

예수의 발화에 대한 영어번역본과 한글번역본들을 잠시 주목하기로 하자. 영어번역본이 문자적 번역(literal)이든, 자유 번역(free)이든, 그리고 역동적 대응 번역(dynamic equivalent)이든 간에,<sup>2)</sup> “나의 아버지의 집에”와 “나의 아버지의 일에”가 공존하고 있다. 즉, 두 가지 번역 가능성이 지지되고 있다. 하

\* 신약학,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1) Joel B. Green,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56.

2) Gordon D. Fee and Douglass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 1988), 46-7에 따르면, 문자적 번역에는 *KJV*와 *NASB*, 문자적 번역과 역동적 대응 번역 중간에는 *RSV*, 역동적 대응 번역에는 *NIV*와 *NAB* 그리고 *GNB*와 *JB*, 자유 번역에는 *Phillips*와 *LB*가 대표적이다.

지만 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분류에 따라, 연구 대상 표현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문자적 번역		역동적 대응 번역		자유 번역	
<i>KJV</i>	<i>RSV</i>	<i>NIV</i>	<i>GNB</i>	<i>Phillips</i>	<i>LB</i>
about my Father's business	in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about my Fathers business		in My Father's house
<i>NASB</i>		<i>NAB</i>	<i>JB</i>		
in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i>NEB</i>		

한글 번역본의 경우, 대체로 “내 아버지의 집에”(『개역판』,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개정판』,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이고, 『현대어 성경』은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라고 한다. 그러나 한글킹제임스번역판은 “내 아버지의 일에”로 번역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τοῖς*와 *εἶναι*의 의미를 언어학,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의미론”에 입각하여 그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다. 나아가 두 단어에 대한 의미 결정에 기초하여 기존의 『개역판』이나 『개역개정판』 그리고 『표준새번역』이나 『표준새번역개정판』의 해당 부분을 새롭게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 데 있다. 즉,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보다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새로운 번역 제안은 성전 혹은 교회 건물 이데올로기에 집착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본고의 연구방법론인 “구조적 의미론”(structural semantics)을 정의하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구절이 속해 있는 누가의 유아 이야기의 거시 구조를 분석하고, 또 성전에서 어린 예수 이야기에 대한 의미론적 패턴을 분석하고, 나아가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ῖ εἶναι με*의 구조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번역 제안의 전망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 2.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의미론의 접근

연구 대상 구절이 소위 복음서라는 텍스트의 일부이기에 먼저 텍스트(text)를 정의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일단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산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규정된다. 언어학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단어이든, 문장

이든, 문장의 연결이든, 물음과 대답이든 간에 “인간의 통보행위”(occurrence in communication)의 단위가 바로 텍스트이다.<sup>3)</sup> 특히, 복음서는 내포 저자(implied author)<sup>4)</sup>가 서술자(narrator)<sup>5)</sup>의 말하기(telling)<sup>6)</sup>를 통해 내포독자(implied reader)<sup>7)</sup>를 대상으로 통보행위를 하는 서사(narrative)이다.<sup>8)</sup> 텍스트와 그것의 의미에 관한 이론적인 전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텍스트는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언어적 실체다. 둘째, 이런 모든 텍스트는 수사학적 역할을 하는 담론, 곧 (내포)독자로부터 인지적, 이념적,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려고 의도된 문학적 구조의 조직이다. 셋째, 의미는 (내포)독자와 텍스트 간의 교호적 관계, 즉 대화과정에서 그리고 대화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sup>9)</sup>

통보행위를 목적으로 기록된 성서, 특히 복음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언어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언어인 ‘코이네 헬라어’(Koine Greek)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언어에 대한 연구 방법들은 크게

3) 고영근, 『텍스트이론: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르케, 1999), 4-8은 다른 용법들도 소개하고 있다. 일상적 용법으로는 언어단위들이 하나의 길고 짧은 글의 조직체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기호학적 용법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문학적 용법으로는 작가가 창작해 놓은 인쇄물이나 독자가 읽고 재생해 낸 작품을 말한다.

4) Wayne C. Booth, 『소설의 수사학』, 최재석·이경우 역 (서울: 한신문화사, 1987), 86에 따르면, ‘내포저자’는 내포독자가 텍스트 전체의 독서 과정에서 형성한 판단, 관점, 수사학적 전략, 약속과 실망의 총체를 의미한다.

5) R.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7은 서술자를 서사를 서술하고 내포독자에게 말을 거는 수사학적 수행장치, 곧 인간성이 제거된 목소리로 정의한다.

6) Helmut Bonheim, 『서사양식: 단편소설의 기법』, 오연희 역 (서울: 예림기획, 1998), 27-9는 균형, 변별력, 그리고 포용력 등의 조건들을 근거로, 서술자의 말하기 양식을 묘사(description), 발화(speech), 보고(report), 그리고 논평(comment) 등으로 나눈다. 묘사는 공간 속의 사물들을 재현하는 것이고, 발화는 시간 속에서 행동하는 사물들에 대한 말의 재현이고, 보고는 말 이외의 재현이고, 그리고 논평은 이것들에 대한 감상이다.

7) Booth, 『소설의 수사학』, 204는 ‘내포독자’를 최초 실제독자의 신념체계에 대한 실제저자의 본래의 객관화된 사고에 그 기원을 둔 수사학적 구성체(rhetorical construct)로 정의한다.

8) 이달, “문학적 성경읽기: 요한복음서의 수난 이야기 문맥에서 본 베드로와 유다의 서사적 기능,” 『기독교 문화연구』, 6집 (2001), 52는 ‘서사 이야기’를 서술자와 피서술자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전제하면서, ‘시작-중간-끝’이라는 사건들의 연속이 존재하는 글로 정의한다. 이런 글에는 전달되는 내용(what)으로서의 ‘이야기’(story)와 그 이야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표현/전달하는 방식(how)으로서 ‘담화’(discourse)가 전제된다.

9)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the Reader and the Rhetoric of Characterization in Luke-Acts, Literary Current in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17.

세 가지로 분류된다. 통시적 접근(diachronic approach; Gk. *διά + χρόνος*), 공시적 접근(synchronic approach; Gk. *σύν + χρόνος*), 그리고 비교 언어학 접근(comparative approach)이다. 실바는 언어학적 석의자가 텍스트를 공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다.<sup>11)</sup> 공시적 접근은 언어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기술하기에 기술적 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으로 불리기도 한다.<sup>12)</sup> 이 접근은 특히 언어의 문법(grammar), 곧 소리와 의미와 관련된 규칙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언어의 문법은 음운론(phonology), 형태론(morphology), 구문론/통사론(syntax), 그리고 “의미론”(semantics) 등이 있다.<sup>13)</sup> 연구자는 공시적 언어학적 방법론의 한 형태인 “구조적 의미론”의 견지에서, 연구 대상인 예수의 발화, 곧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ξιμαί*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번역을 시도하고자 한다.

10) Moises Silva, 『하나님 그리고 언어와 성경과의 관계: 현대 언어학을 통해서 본 성경해석학』,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사, 1994), 36, 23; Max Turner, “Modern Linguistics and the New Testament,” in *Hearing the New Testament: Strategies for Interpretation* (Grand Rapid: Eerdmans, 1995), 146; David Alan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 (Grand Rapid: Baker Books, 1995), 156에 따르면, 코이네는 “공통의”를 뜻하는 “*κοινός*”의 여성형을 영어로 음역한 것이다. 헬라어에 적용되었을 때 이 단어는 삼중적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가 죽은 때인 주전 330년에서 콘스탄틴이 비잔틴을 건설한 때인 주후 330년에 이르는 기간에 사용된 언어를 말한다. “지리적으로”는 그 기간에 지중해 연안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헬라어를 말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 시대에 교육 수준이 낮은 일반인들이 사용한 언어를 말한다.

11) Silva, 『하나님 그리고 언어와 성경과의 관계』, 77.

12)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6의 설명에 따르면, 통시적 접근은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를 연구한다. 역사적 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 곧 언어의 소리 패턴, 개별 단어의 형태, 단어들 간의 문법적 관계, 그 언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자료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 속한다. 비교 언어학(comparative approach)은 동일한 언어의 다른 형태인 방언들 간뿐 아니라 개별 언어들 간의 가능한 관계를 탐구한다.

13) M. H. Abrams,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역 (서울: 보성출판사, 1998), 151에 의하면 언어의 문법을 구성하는 국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이다 첫째, 음운론은 기본적인 언어음성 연구다. 둘째, 형태론은 언어음성을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의 음성군 즉 형태소와 단어로 조직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다. 셋째, 구문론/통사론은 단어연속을 구, 절, 문장의 형태로 배열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다. 이 세 가지에 부가되는 “의미론”은 단어들과, 구나 문장 내의 단어의 의미에 관한 연구다 언어 문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음운론	—	형태론	—	구문론	—	의미론
소리 패턴		단어 패턴		문장 패턴		의미 패턴

본고의 연구 방법론인 “구조적 의미론”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의미론(*σημαίω*)은 단어의 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단어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이다는 의미론을 “언어의 가장 흥미로운 국면은 의미이지만, 우리는 의미의 구조와 그것의 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의했다.<sup>14)</sup> 여기서 “의미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언어적 소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어떤 것도 언어적 실체이지 않다. 의미는 기호에 의해 함축된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sup>15)</sup> 단어 자체가 온전성이나 독립성을 지니면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단어는 더 큰 전체의 작은 일부이다. 전체 안에서 작용하게 하려면 주위의 다른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단어들이 구조적 의미(*structural meaning*)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무의미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용어 ‘구조적 의미’는 주어, 목적어, 시제, 수 등을 말한다. 의미는 특별한 규칙에 따라 구조적 의미가 배열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sup>16)</sup>

구조적 의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구조적 관계로 구성된다 언어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언어수행(*parole*)에 대한 분석은 구조적 관계의 규칙성을 밝혀주는데, 그 규칙성은 언어능력이 있는 화자나 청자에 의해 숙지되는 언어체계(*langue*) 내에 작용하는 통사적 법칙을 설정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병렬관계(*paradigmatic relation*)는 한 문장 안의 어떤 단어와 그 문장의 통사적 형태를 깨트리지 않고서도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수직적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통사단위가 되도록 단어연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한정하는 수평적 관계를 말한다.<sup>17)</sup> 따라서 석의자 혹은 번역자는 구조로서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의미론자는 단어와 구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을 대상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로’ 말하려는 바는 무엇인가?”를 연구한다.<sup>18)</sup> “의미론”이라고 해도 무방

14) Eugene A. Nida, *Exploring Semantic Structure* (Munich: Fink, 1975), 9. J. P. 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4 재인용; Anthony C. Thiselton, “Seman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Grand Rapids: Eerdmann, 1977), 75에 의하면, 의미론은 언어적인 문맥과 외-언어적 문맥 안에서 나타나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연구한다.

15) 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19.

16)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8-9.

17) Thiselton, “Seman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82-5.

하지만 “구조적 의미론”이라 한 것은, 전통적 문법에서의 의미론과 차별을 두고, 또 현대 언어학적 의미론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일 뿐이다.

로우는 (구조적) 의미론이 단어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되고, 담화 전개의 기초 단위인 단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락은 문장으로 구성되고, 문장은 단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이것은 신약성서 헬라어의 의미론의 초기 연구에서 주축을 이루었던 단어중심의 방법론과는 정반대의 절차이다. 따라서 그는 의미론 분석을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으로 부른다.<sup>19)</sup> 의미론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단락, 섹션, 전체 텍스트와 같은 더 큰 언어 단위, 곧 거시구조(macrostructure)에 주목할 뿐 아니라, 문장들을 더 큰 구문론적 단위에 연결시키는 응집성 혹은 응결성(cohesion, coherence)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up>20)</sup> 문장들이 응집성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론적 패턴(semantic pattern)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 3.누가의 유아 이야기의 거시 구조 분석

누가의 유아 이야기(infant narrative)의 거시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인 “누가”가 예수의 사역을 갈등(conflict)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구성되는지,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주목하면 된다.<sup>22)</sup> 이 이야기의 거시적 구조를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플롯(plot)의 견지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

18)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9.

19) 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vii-viii; 고영근, 『텍스트이론』, 9은 “텍스트언어학” 혹은 “담화분석”을 통보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170의 설명에 의하면, 담화분석은 텍스트를 구성 요소들인 단어나 절과 같은 더 작은 단위들이 단락이나 섹션과 같은 더 큰 단위로 결합하면서 의미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권중선, “담화분석,” 『신약성서 해석과 비평』 (대전: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474-97을 참고하시오.

20)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171-2은 텍스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 곧 저술 장소, 저술 경위, 그리고 독자의 환경을 분별하면서 특정 부분의 상대적 중요성과 핵심성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21) John C. Tuggy, “Semantic Paragraph Patterns: A Fundamental Communication Concept and Interpretive Tool.” in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Discourse Analysis*, ed. David Alan Black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46.

22) Darrell L. Bock, “The Gospel of Luke,”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495-510.

다.<sup>23)</sup>

누가복음에서 주된 갈등은 인간적 차원에서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다.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러한 갈등은 십자가 에피소드에서 극도로 악화된다. 지도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입증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독자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십자가가 예수께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왕(Messiah-King)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의 영광스런 통치의 개시자로 기대한 곳이라 생각한다.

연구 대상의 구절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은 유아 이야기의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의 앞에 있는 헬라 문학적 서문(1:1-4)에서, 서술자 누가는 이야기(*διήγησιον*, narrative)의 기원과 내용 그리고 목적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논평(comment)한다.<sup>24)</sup> 그것의 내용은 *περὶ τῶν πεπληροφορημένων ἐν ἡμῖν πραγμάτων*, 곧 “우리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일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를 포함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 표현이 일종의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또는 *passivum divinum*) 혹은 신학적 수동태(theological passive)이기 때문이다.<sup>25)</sup> 이것이 “중성 복수”로 제시되고 있음에 일단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이미 예수에 관해서 배운 적이 있는 데오빌로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배운 바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

서술자의 논평인 서문에 이어지는 소위 “유아 이야기”(1:5-2:52)는, 주 플롯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또 주요 주제인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예고해주는 역할을 한다.<sup>26)</sup> 탄네힐의 분석에 따르면, 평행적 장면들과 주제의 반복에 의해서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유아 이야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sup>27)</sup>

23) Jack Dean Kingsbury, “The Plot of Luke’s Story of Jesus,” in *Gospel Interpretation: Narrative-Critical & Social-Scientific Approaches*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155.

24) Robert C. Tannehill, *Luke* (Nashville: Abington Press, 1996), 33; Stuart and Fee,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4는 이런 헬라적 역사서술(hellenistic historiography)이 의도하는 바에 관해, 기본적으로 역사를 기록해서 보존하기 위하여(역사), 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독서의 기쁨을 즐기도록(독서의 기쁨), 그리고 사실을 알리고 교훈을 주고, 때로는 변증을 하기 위함(신학)으로 설명한다.

25) 장동수, “신적 수동태 구절 소고,” 『성경원문연구』, 7호 (2000), 117-48을 참고하십시오.

26)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44; Mark Allan Powell, “Toward a Narrative-Critical Understanding of Luke,” in *Gospel Interpretation: Narrative-Critical & Social-Scientific Approaches*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127.

출생 준비

요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선언 1 (1:5-23)

엘리자벳의 수태 불가능에 초점을 둔 인간의 제한적인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이해(1:24-25)

예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언 2 (1:26-38)

인간의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이해; 엘리자벳의 마리아 칭송과 마리아의 하나님 찬양, 찬양 1: “마리아 송가”(1:39-56)

출생

요한

즐거움과 경이로운 출생, 할례, 작명 (1:57-66)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인식, 찬송 2: “만물송가”(1:67-79)

결론적인 성장의 후렴구 (1:80)

예수

즐거움과 경이로운 출생, 할례, 작명; 목자들에게 천사의 선언 3 (2:1-21)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인식하면서 성전에 등장, 찬송 3: “시므온의 송가” (2:22-39)

성전에서 어린 예수의 이야기에 의해 예시된 지혜로 성장과 더불어 결론적인 성장의 후렴구 (2:40-52)

사실, 예수와 세례(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 곧 구원, 위로, 구속, 평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intervention)의 이야기이다.<sup>28)</sup> 특히 찬송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표현하고, 서술되는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한다.<sup>29)</sup> 예수의 정체라는 기독교적 국면에서 말하자

27) Tannehill, *Luke*, 36-7.

28) Green,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54, citing Charles Thomas Davis III, “The Literary Structure of Luke 1-2,” in *Art and Meaning: Rhetoric in Biblical Literature*, JSOTSS 19 (Sheffield: JSOT, 1982), 215-29.

29) Tannehill, *Luke*, 38.

면,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1:15, 75)에 불과하지만, 예수는 다윗 자손인 메시아-왕, 하나님의 왕적 아들, 구세주, 주님(1:31-35; 2:10-11)이다. 곧, 예수는 종말적 인물이다. 메시아로서 예수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과 같은 왕, 곧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을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는 모든 의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도 독특한 관계를 누린다. 구세주로서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먼저는 유대인을 다음으로는 이방인을 구원할 분이다.<sup>30)</sup>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성취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에 따른 갈릴리에서 가르침과 치유 사역(3:1-9:50),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9:51-19:44),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19:45-24:53) 등으로 전개되지만 본고의 연구 범위 밖이기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4. 성전에서 어린 예수 이야기에 대한 의미론적 패턴 분석

이제는 어린 예수의 성전 이야기의 의미론적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술자는 이 단락의 처음과 끝인 40절과 52절에서 예수의 성장에 관한 특징을 논평한다. 그것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영적 성장으로 말할 수도 있는 전인적 성장이다. 특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성장이다. 서술자는 그런 성장의 과정 중에 있었던 한 일화를 말함으로 유아 이야기를 마무리짓는다.

서술자는 그 아이의 부모가 “해마다”(κατ’ ἔτος)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다고 논평함으로 독자가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해하게 한다(41절). 유월절(τῆ ἑορτῆ τοῦ πάσχα)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여성인 마리아의 경우 필수적이지는 않았다. 마리아도 참여한 가족 순례여행은 그 집안의 경건함을 더 부각시킨다. 서술자는 예수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설정한다. 유대적 관습에 따르면, 열두 살은 율법 아래서 성인의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하는 전환기이다.<sup>31)</sup> 그도 역시 한 경건한 유대인 혹은 “율법의 아들”로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관례를 온전히 수행했다. 하지만 서술자가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법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아주 특이

30) Kingsbury, “The Plot of Luke’s Story of Jesus,” 155.

31) John Nolland, *Luke 1-9:20*, vol. 35A,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89), 129; 김광수, 『마가 마태 누가의 예수 이야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435.

하다(cf., 2:27, 31). 물론 성전 모티브 자체가 부재하다는 말은 아니다.

계속해서, 서술자는 그의 부모와 동행했던 어린 예수가 그들과 결별되어 있는 장면을 묘사한다. 부모들은 다시 거주지로 돌아가는 반면,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ὑπέμεινεν Ἰησοῦς ὁ παῖς ἐν Ἱερουσαλήμ*). 아직도 어린이(*ὁ παῖς*)이지만 한 성인으로 간주되는 나이가 된 예수는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예수가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시작한 결과에 대한 묘사이다.

서술자는 부모들의 어리석음을 논평한 후(43c절), 그들이 사고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행동에도 어리석음이 있음을 반영하는 행동을 보고한다(44절). 실제 상황과는 달리, 그들의 임의적 사고는 하루 길이라는 시간만큼이나 잘못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 예수를 친척과 지인들 중에서 찾으려는 그들의 행동을 두고 독자는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루의 어리석음은 하룻길을 걸어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했고 계속해서 삼일 동안 염려하면서 어린 예수를 찾아 헤매는 무의미한 수고를 필요로 한다(45-46a절).

서술자는 결국 그들이 어린 예수를 “성전에서”(ἐν τῷ ἱερῷ) 찾았다고 보고한다(46b절).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성전을 “단수”로 서술하고 있고, 또 전치사 다음에 관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이다. 즉, “전치사 + 관사 + 명사” 구조이다. 서술자는 성전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세 개의 현재분사형을 사용해서 보고한다(46c절). 즉, 율법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또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καθεζόμενον ἐν μέσῳ τῶν διδασκάλων καὶ ἀκούοντα αὐτῶν καὶ ἐπερωτῶντα αὐτούς*). 놀란드의 이해처럼, 어린 예수는 당시에 유행한 대화적 형태로 학습하는 열심 있는 학생이다.<sup>32)</sup> 예수의 지성과 능란한 답변은 당대의 석학들을 놀라게 한다. 열두 살의 예수는 당시의 지성인들이라 할 수 있는 교사들과 동급으로 제시된다.<sup>33)</sup> 하지만 독자는 예수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임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기에 전혀 놀라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서술자는 율법 선생들이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랄 뿐이지, 결코 그를 칭찬하거나 찬양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47절). 따라서 독자는 그들을 성전에서 갓난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던 시므온이나 안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예수와 율법 교사간의 관계에는 다소의 대립 혹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인 어린 예수는 하나님의 임

32) Nolland, *Luke 1-9:20*, 130.

33) Tannehill, *Luke*, 75.

재의 장소이자 지도자들의 권세지인 성전에서 저들에게 일종의 충격을 준 셈이다. 그들의 놀람이 극적인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sup>34)</sup>

율법 교사들을 놀래고 있는 어린 예수를 발견한 부모들은 역시 놀란다(48절). 부모들의 염려와는 달리 어린 예수는 안전하고 평안하기까지 하다. 부모들은 아이를 찾는 데 열심을 보였지만, 아이 예수는 다른 것을 찾는 데 열심이다. 이런 상황을 설정한 서술자는 이제 서술의 기법에 변화를 준다. 즉, 지금까지는 보고와 논평 그리고 묘사의 기법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대화의 기법을 사용한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수를 책망하는 말을 한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처신했느냐? 너의 아버지와 나는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Τέκνον, τί ἐποίησας ἡμῖν οὕτως; ἰδοὺ ὁ πατήρ σου καὶ γὰρ ὀδυνώμενοι ἐζητοῦμέν σε). 서술자는, Nolland의 이해처럼, 마리아의 발화를 통해 어린 예수가 의도적으로 그의 부모를 거절한 것에 대한 책망을 서술하고 있다.<sup>35)</sup>

서술자는 계속해서 대화 기법을 사용해서 서술한다(49절). 즉, 예수의 발화를 통해 예수 자신의 특별 사명, 그리고 그 사명과 가족의 기대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절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다.<sup>36)</sup> 예수의 발화는 사실 두 개의 질문이다. “Τί ὄτι ἐζητεῖτέ με; οὐκ ἤδειτε ὅτι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δεῖ εἶναί με;” 첫째 질문, “저를 찾는 일을 왜 (했습니까)?”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Τί ὄτι는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sup>37)</sup> 그렇다면, 마리아의 책망에 대한 예수의 대응-비난인 셈이다. 그들이 자신을 찾은 행동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는 의미다.

예수의 둘째 질문을 구문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_\_\_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이다. 이 표현에서 빈칸은 헬라어 문장에 남성 혹은 중성 복수 명사가 있어야 하지만 없음을 표시한다. 그렇기에, 예수의 이 발화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한 개 이상의 번역이 가능하다.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해서는 이 분석 후에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οὐκ로 시작해서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이 질문은 그 자신에 대한 부모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는 비난이다. 예수와 그 부모간의 대화에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자리하고 있다.

34) Kingsbury, “The Plot of Luke’s Story of Jesus,” 156.

35) Nolland, *Luke 1-9:20*, 131.

36) Tannehill, *Luke*, 75.

37) R. C. H. Lenski, *Interpretation of Luke* (Columbus: The Wartburg Press, 1946), 166.

예수의 발화는, 탄네힐의 설명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는 그 부모가 이 관계에 무지함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_\_\_들”에 “집”을 선호하는 주장은 그의 부모가 여러 곳을 찾다가 마침내 바로 그곳에서 찾았다는 점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장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예수가 장소에 관해 말했을 리 없다. 앞서 고찰한 바 있듯이, 예수의 발화는 그의 부모가 자신의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속한 일들에 관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sup>39)</sup>

서술자는 그의 부모들이 예수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논평한다(50절). 그리고 예수가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고 요약적으로 보고하면서(51a절),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발화의 내용에 대해 여전히 무지할 뿐 아니라 일종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부가적으로 보고한다(51b절). 코올리지의 지적처럼,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ῖ εἶναί με*라 발화한 예수는 2장 51절에서 성전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나사렛과 성전 모두에 있어야 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장소는 결정적이지 않다. 또한 부모의 몰이해의 당혹감은 예수의 발화의 애매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미에 당혹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40)</sup>

서술자가 예수의 성장에 대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논평으로 성전에서 어린 예수 이야기와 동시에 유아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52절), 독자는 예수에 대한 이해, 영접, 그리고 그의 특수한 역할의 수행을 기대하게 된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에서의 성전 이야기에 이어지고 있다.<sup>41)</sup>

## 5.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ῖ εἶναί με*의 구조적 의미 분석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특정 단어는 큰 전체 구조의 작은 일부이다. 특정

38) Tannehill, *Luke*, 75.

39) Lenski, *Interpretation of Luke*, 167.

40) Mark Coleridge, *The Birth of the Lukan Narrative: Narrative as Christology in Luke 1-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88 (1993), 202.

41) Russell Pregeant, *Engaging the New Testament: An Interdisciplinary Introduc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39.

단어는 특별한 규칙에 따라 ‘구조적 의미’로 배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주어진다. 따라서 예수의 둘째 질문의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ῖ εἶναί με* 부분에 대한 구조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표현과 의미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합관계에 대한 고찰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병렬관계에 대한 고찰 역시 마찬가지로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 5.1. δεῖ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당연히 *δεῖ*이다. 이 단어는 신적 필연을 나타내는 비인칭동사이다. 서술자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로우-나이다, 『신약성서 의미론 사전』, 71.34에 따르면,<sup>42)</sup> *δεῖ*는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드시 .....되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가는 이 단어를 12회 사용한다. 그 중에 예수와 관련된 어 사용될 경우,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의 견지에서 그의 사명과 운명과 관련된 필연, 곧 신적 필연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4:43). 인자는 고난 받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다(9:22; 17:25; 24:7). 예수는 이런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수용한다(13:33). 예수의 이런 운명은 기필코 성취된다(22:37; 24:44). 누가복음에서 예외도 있겠지만,<sup>43)</sup> *δεῖ*가 예수와 관련된 경우 그의 사명과 운명에 대한 신적 필연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하다. 종말적 사건들(21:9)도 신적 필연의 한 국면이다. *δεῖ*가 사건의 불가피성 혹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일부를 나타낸다는 로우-나이다의 설명은 누가복음에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렌스키의 설명처럼,<sup>44)</sup> 서술자는 신적 필연을 나타내는 *δεῖ*를 *τοῦ πατρὸς μου*와 결합관계가 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관계에서 그것의 의미를 결정짓게 한다. 즉, 예수의 발화에서 *δεῖ*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라는 거대한 구도에서 예수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드러내는 용어이다.<sup>45)</sup>

42) Johannes P. Louw and Eugen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BS, 1989).

43) *δεῖ*가 제자의 증언(12:12), 고소자들의 안식일 준수 주장(13:14), 그리고 예수의 의지(19:5) 등과도 관련된다.

44) Lenski, *Interpretation of Luke*, 166에 따르면, *δεῖ*는 모든 형태의 필연을 표현할 수 있지만,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필연이다.

45)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9), 443; Coleridge, *The Birth of the Lukan Narrative*, 202.

## 5.2. ἐν..... εἶναι με

신적 필연을 나타내는 δεῖ는 부정사(구)와 결합관계를 이루는 비인칭동사이다. 여기서 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는 예수를 지시하는 με이다. 그리고 부정사는 εἶναι인데 이것은 ἐν과 결합관계에 있다. 로우-나이다, 『신약성서 의미론 사전』, 68.20은 εἶμι가 ἐν과 결합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문자적으로는 “...에 존재하다”라는 속어이지만, 실제적 의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기를 계속하다”라고 설명한다. 즉, 행동의 국면(aspect)이라는 의미 영역에서 “실천하다, 계속 행하다, 혹은 계발하다”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ἐν을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간주되어는 안 된다.<sup>46)</sup> 렌스키는 “관심을 두다”(attract) 그리고 “중사하다”(occupy)라는 의미를 택하고 있다.<sup>47)</sup>

## 5.3. τοῖς τοῦ πατρός μου

이제는 관사 τοῖς와 τοῦ πατρός μου의 결합관계를 고찰할 차례이다. 먼저 τοῦ πατρός μου의 결합관계를 설명하겠다. 서술자는 예수의 발화 중에서 τοῦ πατρός μου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또 예수가 요셉이 아닌 다른 아버지, 곧 아버지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는 것을 서술한다. 이 서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한다.<sup>48)</sup> 예수는 아버지 에 대한 동일시 사상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에 충실했다. 이 발화에는 예수의 위격과 메시아 됨이 배어 있다.<sup>49)</sup>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ός μου를 “나의 아버지 집에”로 번역하길 선호한다.<sup>50)</sup> 이런 번역의 근거들은 대략 네 가지로 나뉠

46) cf., Richard A. Young,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95.

47) Lenski, *Interpretation of Luke*, 166.

48) Robert L. Brawley, *Luke-Act and the Jew: Conflict, Apology, and Conciliation* (Atlanta: Scholar Press, 1987), 21.

49) Bock, *Luke 1-9:50,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271.

50)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43은 성서와 성서 외의 헬라어 문헌에서 “관사 중성 복수 + 속격 명사”가 “~의 집”을 의미한다고 증빙구절들을 제시한다(70인역 창 41:51; 스 7:9; 욥 18:19; 요세푸스, 『아피온에 반대한 소논문』, 1.18 §118; 『고대사』, 16.10.1§302; OxyP 3.523.3). 또한 그는 “집”의 의미가 교부의 해석과 초기 번역본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한다.

수 있는데, 쉽게 논박되기도 한다. 첫째, 문맥의 근거이다. 마샤은 “집”을 지지하는데, 언어학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문맥이 요구하는데, 요점은 예수가 발견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51)</sup> 바크 역시 같은 설명을 하면서 “집”을 지지한다.<sup>52)</sup> 그러나, 그들은 문맥을 말하면서도 구조적 의미 단위를 나누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즉, 앞서 설명했듯이 *ἐν*의 구조를 간과한 것이다. 둘째, 누가복음 병행구절의 근거이다. 스타인 역시 “내 아버지의 집”을 가장 좋은 이해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병행구절인 6장 4절과 19장 46절에서 성전이 하나님 집으로 언급되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가 성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sup>53)</sup> 하지만 6장 4절의 *εἰς τὸν οἶκον τοῦ θεοῦ*에서 집을 지시하는 명사는 단수이지 복수가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19장 46절의 *ἔσται ὁ οἶκος μου*에서도 단수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증빙구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누가복음 밖의 병행구절의 근거이다. 플루머는 “내 아버지의 일에 종사하다”가 가능하겠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가 아마도 옳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창세기 41장 51절(LXX, *πάντων τῶν τοῦ πατρὸς μου*)을 제시한다.<sup>54)</sup> 예수가 아람어로 ‘집’을 말했다면, 누가가 이것을 중성 복수 관사가 아니라 *οἶκος*라 번역했을 것이다.<sup>55)</sup> 누가는 “아버지의 집”을 *ἐν τῷ οἴκῳ τοῦ πατρὸς*로 분명히 표현하기도 한다(행 7:20). 넷째, 헬라이어 숙어의 근거이다. 로버트슨 역시 같은 구절을 제시하면서 “내 아버지의 일에 관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입장이다. 헬라이어의 일반적인 숙어라는 것이다.<sup>56)</sup> 하지만, 성서 밖의 자료에

51) I. Harward Marshall, 『누가복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160.

52) Bock, *Luke 1-9:50*, 270은 막 8:33과 고전 7:32-34에는 전치사 *ἐν*이 사용되지 않고, 또 딤후전 4:15에는 전치사 *ἐν*이 사용되고 중성 복수 지시 대명사가 있기에 증빙구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οὐ φρονεῖς τὰ τοῦ θεοῦ ἀλλὰ τὰ τῶν ἀνθρώπων* (막 8:33)에서 *ἐν*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동사 *φρονέω*(생각하다)가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고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7장 32-34절에서 *τὰ τοῦ κυρίου*에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동사 *μεριμνάω*(관심을 두다)가 목적어를 바로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전치사 *ἐν*이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일의 대상을 지시한다는 적극적인 증빙구절이다.

53) Robert H. Stein, *Luke*, vol. 24A,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123.

54) Alfred Plummer,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vol. 25,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 T. & T. Clark, 1901), 77.

55) Lenski, *Interpretation of Luke*, 167.

56) A. T. Robertso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II, *Word Picture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Press, 1930), 34.

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약성서에서는 단 한번, 바로 여기서 사용될 뿐이라고 말한다.<sup>57)</sup>

관사 복수 *τοῖς*가 성전을 나타내는 용어인 *ναός*나 *ἱερόν*과 병렬관계가 가능한지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전을 나타내는 *ναός*의 용례들을 살펴보자. 로우-나이다, 『신약성서 의미론 사전』, 7.15는 *ναός*를 신이 경배 받는 건물, 곧 예루살렘 성전의 경우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인 성전, 지성소(마 23:35)로 설명한다. *ναός*는 종종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혹은 ‘하나님의 건물’로 번역된다. 또는 ‘거룩한 집’이나 ‘거룩한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비유적으로는 몸을 지시하기도 한다(요 2:21; 고전 6:19).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용례들이 누가문서에 두 차례이다. 사도행전 17:24에서, “손으로 만든 성전들”(ἐν χειροποιήτοις ναοῖς)는 복수형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손으로 만든 성전들”(ναοὺς ἄργυροῦς)도 복수형이다. 두 용례 모두 이방신전에 대한 지시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누가의 서술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단수로 말한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9절에서는 “주의 성전 안으로”(εἰς τὸν ναὸν τοῦ κυρίου)이다. 23장 45절에서도 “성전의 휘장”(τὸ καταπέτασμα τοῦ ναοῦ)으로 단수이다.<sup>58)</sup> 결정적으로는 2장 46절에서 ἐν τῷ ἱωρῶ이다. 그렇다면, *τοῖς*가 *ναός*와 병렬관계로 구성하기는 무리이다.

성전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인 *ἱερόν*이 *τοῖς*와 병렬관계가 가능한 지에 관해 살펴보자. 로우-나이다, 『신약성서 의미론 사전』, 7.16에 의하면, *ἱερόν*가 단수형으로서 성전 혹은 지성소 그리고 성전 주위(요 10:23; 마 21:12)를 뜻한다. 복수형으로 사용될 경우 성전에서 드러지는 제사를 의미한다(고전 9:13; οἱ τὰ ἱερὰ ἐργαζόμενοι). 신약성서에서 *ἱερόν*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건물, 뜰, 그리고 저장창고를 포함하는 성전 전체를 말한다. 물론 아데미 신전을 말하는 사도행전 9:13은 예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된다. 성전에 대한 전문 용어는 *ναός*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는 지성소를 말한다. 물론 *ναός*와 *ἱερόν*이 항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막 11:15; 마 21:12; 눅 19:45; 요 2:14). 그렇다면, *τοῖς*가

57) Lenski, *Interpretation of Luke*, 167; Coleridge, *The Birth of the Lukan Narrative*, 201.

58) 그 밖의 복음서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τὸν ναὸν τοῦ θεοῦ)은 단수형으로 제시된다(마 23:16, 17; 23:35; 26:61; 27:5, 40, 51; 막 14:58; 15:29, 38; 요 2:19, 20, 21). 서신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고전 3:16, 17; 6:19; 고후 6:16; 엡 2:21; 살후 2:4; 계 11:1, 2, 19; 14:15, 17; 15:5, 6, 8; 16:1, 17; 21:22).

ἱερόν과 병렬관계로 구성하기도 무리이다.

이상의 고찰을 근거로 말하자면,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번역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이런 입장의 근거를 다시 정리해 본다. 첫째, 구조적 의미 단위를 나누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해이다. 둘째, 병행구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주로 단수로 표현된다. 셋째, 집에 해당하는 단어 οἶκος가 따로 있다. 넷째, 일반적인 숙어가 아니라 단 한 차례 사용될 뿐이다. 다섯째, τοῖς가 ναός나 ἱερόν와는 병렬관계로 구성되기란 무리이다.

물론, τοῖς를 중성 복수가 아니라 남성 복수로 간주한다면, 그것의 선행사가 46절의 διδάσκαλοι일 가능성도 있다.<sup>59)</sup> 이럴 경우,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람들 중에 있어야 한다”가 된다. 일부 교부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지만, 이런 이해는 설득력이 희박하다. 이런 이해는 예수의 발화의 의미를 희석시킬 뿐이다. 또한 율법 교사들의 놀람의 긴장과도 잘 부합되지 않는다. 바크의 지적처럼, 전체 이야기에서 율법 교사들과의 예수간의 충돌 혹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견해는 거의 지지 받지 못하고 있다.<sup>60)</sup>

“집”도 무리이고, “선생들”도 마찬가지로, “일(들)”이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규칙에 따르면, 중성 복수 관사가 사람의 속격과 결합관계를 구성할 때, “일들 혹은 사물들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내 아버지의 일”에”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sup>61)</sup> 겔덴휴즈는 “내가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관심사로 분주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관심사는 하나님의 계시, 지식, 그리고 섬김 등이다. 이 발화에는 그의 아들 됨과 그의 생애의 사명이 그의 아버지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예수는 그의 아버지 일에 전념해야 한다.<sup>62)</sup> 바크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설명은 “일”에 경사되어 있다. 그가 말하는 집은 성전이고 성전은 가르침이 있는 곳이기(눅 20-21장), 예수는 거룩한 곳에서 가르침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선포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논

59)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44를 참고하십시오.

60) Bock, *Luke 1-9:50*, 269.

61) Lenski, *Interpretation of Luke*, 166.

62) Norval Geldenhuys,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28.

의하는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3)</sup> 이반즈는 일반 고전적 그리고 헬라적 용례에서 *τά*가 “관심사, 혹은 일”을 나타내고(막 8:33; 고전 7:32), 또 *εἶναι ἐν*이 “관여하다”(딤후 4:15)를 나타낸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다.<sup>64)</sup> 윌코크는 “아버지의 일”을 “구원 활동”으로 말한다.<sup>65)</sup> 그렇다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 6. 결론적 제언

지금까지 연구자는 누가의 유아 이야기에 대한 거시 구조 분석, 성전에서 어린 예수 이야기에 대한 의미론적 패턴 분석, 그리고 구조적 의미 분석 등을 근거로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δεῖ εἶναι μὲ*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장소로서 집을 포함해서 “일” 혹은 “사무”를 의미한다는 입장, 곧 이중적 의미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sup>66)</sup> 예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에 있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역할이다.<sup>67)</sup> 성전에서 예수가 말한 불가사의한 진술은 한 유대 성인으로서 그의 활동에 대한 전조의 발화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이다. 이것은 서술자의 관점, 곧 예수에 대한 반대가 성전에서 중심이 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예수가 죽게 될 것에 대한 무대를 설정한다는 것과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sup>68)</sup> 이제 독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 지를 기대하고 주목한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63) Bock, *Luke 1-9:50*, 270; Darrell L. Bock, *Luke*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63.

64) C. F. Evans, *Saint Luke*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226.

65) Michael Wilcock, *The Message of Luke*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79), 49.

66) Tannehill, *Luke*, 77; Francis D. Weinert, “The Multiple Meanings of Luke 2:49 and Their Significance,” *Biblical Theology Bulletin*, vol. 13, no. 1 (1983) 19-22는 지역적, 기능적 그리고 인격적 의미 모두를 결합시키는 개방적 의미를 의도했기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οἶκος*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67) Green,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56.

68) René Laurentin, *Jesus au Temple* (Paris: J. Gabalda, 1966), 37-76. Dawsey, *Lukan Voice*, 116 재인용.

리스도인,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성전 중심의 신앙에 치우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ῖ εἶναί με*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로의 번역도 적잖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복음서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sup>69)</sup> 오히려 부정적인 국면이 더 부각되어 묘사되어 있다.<sup>70)</sup> 교회건물을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런 개념에 입각한 성전 이데올로기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면, 소위 성전건축을 위한 헌금강요일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교회 안에서 안주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나아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 것이라 기대된다.

69) M. O. Wise, “Temple,”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oel B. Green and Scot McKnigh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816.

70) 김세윤, “예수와 성전,”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참말, 1993), 120은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첫째, 예수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주장했기에 산헤드린 재판에서 그 죄목으로 고소되어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 둘째, 예수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전에 간 것이 아니다. 셋째, 예수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죄를 용서하여 주고, 병을 치유하며, 정결법 상 불결한 자들을 청결하게 함으로 성전의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였다. 넷째, 예수는 당시 부패한 성전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예수는 성전에 대해 지배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lt;Abstract&gt;

## An Alternative Translation of Luke 2:49b based on Semantics

Gwang-Mo Kim

The only passage speaking of Jesus' childhood life (Lk 2:40-50) includes his first speech, that is,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ῖ εἶναι με." In this speech, the article plural τοῖς is not followed by a noun, so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its meaning. Traditionally, scholars have preferred to translate it into "house," but others want to interpret it as "teachers" or "things." And εἶναι can be translated into "be" or "engage in." This writer proposes that the speech be translated, "It is necessary for me to engage in my Father's works." The methodology is (structural) semantics. And the procedure is developed in the following order: explanation of structural semantics, macroscopic analysis of Jesus' infant narrative; analysis of semantic pattern of Jesus' Temple narrative; and translation of the first speech.

In any text defined as occurrence in communication, meaning of the word(s) is determined by its structural meaning, by the methodology called structural semantics. In order to analyze structural semantics, we must give our attention to the macrostructure of the text, and then to its semantic patterns. The narrator "Luke" structures Jesus' earthly ministry as one of carrying out God's saving activity and establishing the Kingdom of God in conflict with the religious authority. The account of Jesus' temple episode is the concluding part of Jesus' infant narrative in the Gospel of Luke. Jesus' discussion with the scribes and his parents is characterized as one committed to God's purpose.

Jesus' first speech,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δεῖ εἶναι με has both syntagmatic and paradigmatic relations. Firstly, δεῖ means divine necessity, that is, the mission Jesus must carry out in the great scheme of God's plan and purpose. Secondly, εἶναι is in syntagmatic relation with ἐν. Thus, ἐν..... εἶναι με means "for me to engage in....." Thirdly, τοῖ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indicates two points. One is the familiar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God. God is Jesus' Father, which

Jesus knows. The other is that article plural *τοῖς* without any noun can indicate “houses” or “teachers,” but “works” is the most fitting in the terms of structural semantics. Therefore, this writer proposes that *ἐν τοῖς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δεῖ ἐνθά με* be translated into “It is necessary for me to engage in my Father’s works.” This translation helps readers focus not on the temple or building but on God’s works, so they commit themselves to God and God’s works.